

했다. 그러면서 그 중년여인이 바로
그런 환자라면서

“글쎄 돼지불고기를 그렇게 좋아했
다지 않습니까. 잘 익지 않은 건 안 돼요.
현대인이 그렇게도 의학상식이 없
어서야 참 한심한 일예요. 안 그렇
습니까?”

나는 아무 대답도 못했다.

그날 이후 돼지불고기는 우리 식탁
에서 모습을 감추었으며 그동안 즐겨
먹은 그 위(胃)속 주머니까지도 끄낼
수만 있다면 뒤집어 말끔히 세탁하고
싶은 그런 흉통과 결벽증에 사로잡혀
있는 요즘이다.

<원자=女流小說家>

<토막상식>

性能力을 오래 오래 가질
려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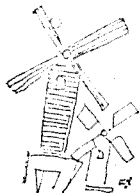
무엇보다 건강이 제일이다. 중년에서
노년(老年)에 걸쳐 일어나는 이른바 성
인병(成人病)은 성능력에 영향을 주는
일이 많다.

당뇨병들은 특별히 주의해야 할 병이
다.

성적 관심을 잃지 말아야 했고, 또는
자기의 나이가 지나쳐서, 틀렸다는 열등
감(劣等感)을 갖지 말아야 한다. 성욕
은 식욕처럼 개인차(個人差)가 심하다.
자기가 만족하면 그만이지, 절대 없는
걱정은 절대로 말아야 한다.

<外誌에서>

분풍(糞風)과 더블 어



이 한 수

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외국 관광객
을 유치해서 외화를 벌겠다는 응지로
세워진 것이 바로 워커힐이었다. 그
래서 당초에는 내국인(內國人)은 출입
금지지가 되고, 패스를 받은 몇몇 특
권층만이 그곳의 근대적 시설을 만끽
하는 영예를 누린 시절도 있었다. 이
무렵 나는 특권의 영예가 아닌 대수
롭지 않은 일로 워커힐을 몇번 드나
들어야 했다. 그때는 바야흐로 혼풍
이 불어야 할 봄.

그런데 마침 일단의 외국 귀빈들이
우리나라를 찾아 왔고, 그들의 스캐
주올엔 워커힐에 여장을 푸는 것으로
되어 있었다. 나는 이 소식을 듣고
적이 걱정이었다. 그렇다고 그것은
입밖에 낼 성질의 것도 아니었다. 그
런데 저녁녘이 되어 그 귀빈들의 일
단이 헬리콥터로 워커힐로 향했다는

뉴우스를 들고야 비로소 나는 남모르
는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다. 이 사
람은 지금 쓰는 이 글이 아니었다면
영영 그따위 보잘 것 없는 일들은 털
어놓지 않았을게다. 내가 당시에 격
정스러웠던 것은 똥바람이다. 문자로
써서 분풍(糞風)이라고 해도 좋다.
그 한봄에 똥섬벌에는 훈풍이 아닌
분풍이 천지 가득히 불어대고 있었
다. 우리 조상과 우리들은 봄 가을로
이 분풍을 숙명인양 말고 살아 왔지
만, 외국인에게까지 대접할 것은 정
녕 못된다. 꽃향기 봄바람을 기대했
을 외국인이 이 분풍을 가까이 맡았
더라면 기겁을 했을 것이 아닌가. 그
후 국도변의 밭에는 인분을 주지 않
기로 해서 그런지 요즘은 다소 나아
졌다. 그러나 지금도 셋길로 들어서
면 분풍은 여전히 코를 찌른다.

기생충 얘기를 한다는 사람의 서설
이 너무 길었다. 이례서 우리는 지금
껏 인분=기생충이라는 방정식에서
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.

일정시 우리들이 어렸을 때에는 학
교에서 1년에 한번씩 해인초(海人草)
를 다려서 거시약[蠅蟲藥]으로 먹었
었다. 그 메스껍고 구역질나던 생각
이 새롭다.

아마도 거
시라는 말은
지렁이의 옛
말 「거취」에
서 온 듯한데
이 밖에 벌레



충(蟲)이라는 말과도 통한다. 아직도
우리 시골엔 가면 충 때문에 담배를
배웠다는 아낙네가 있고, 충에는 쥐
발유가 아니던 안 된다는 남성네가
있다. 뿐만 아니라 한약으로 사군자
(使君子=나무열매)가 특효약으로 꼽
혔다는 말도 있고……. 옛날 J서
서는 S약국이 그 지방의 유명약국으
로 추앙을 받았었는데, 약국 주인의
비결은 원인불명의 복통에는 무조건
회충약을 투약했다는 것이다.

맹장염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했다
니 맹장은 멀쩡해서 어쩔 줄 모르던
외국인 의사에게 그와 함께 수술하던
한국인 의사는 의적이 회충을 찾아내
보이며 우리나라 의술진의 드높은 수
준을 자랑했다는 얘기는 과연 연재
쯤이나 되어야 까마득한 옛말이 될까.

<필자=이한수 칫과원장·의학박사>

• 기생충 박멸 포어
새마을 건설은 기생충 구제
부터